

여수에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들어선다

건축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연내 착공해 2026년에 건립

여수시가 지난 11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전남도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구)문수청사 내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미

어체험관, 스튜디오, 디지털교육실, 다목적 공개홀 등을 갖추고 오는 2026년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5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시 문화산업국장,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해 시의회,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공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지평건축사무소에서 센터 건축설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시청자미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오는 2026년 여수시 옛 문수청사 내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지어진다. 공모 당선작 조감도. 여수시 제공

어센터의 대지분석, 공간구성, 동선 및 주차계획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오는 8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 후 연내 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서재훈 문화예술과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전남도민과 여수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문화원님길 시민 공리랩' 공모 광양문화도시센터

광양문화도시센터가 올해 문화원님길 사업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시민 공리랩(Lab.)'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공리를 하는 랩(Laboratory, 연구실)'이란 뜻의 시민 공리랩 팀은 문화원님길 사업에 참여해 유무형의 모든 콘텐츠를 공리하고 토의해 실현하는 활동팀이다. 센터는 광양동초교-광양역사문화관 길을 대상으로 정하고 2022년부터 문화원님길 사업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이 길에서 과거에 행해졌던 '원님 행차 재현' 행사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며, 기획부터 준비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민 공리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3년 차가 되는 올해는 4개 분야로 사업을 세분화해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커뮤니티 라운지 운영 △아트워크 제작 및 관리 △원님 행차 연출 및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 공리랩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참가신청서, 활동계획서 등을 구비해 전자우편(gycc2022@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시훈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원님길 사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리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기획력과 애乡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광양문화도시센터(061-761-0701)에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꽃창포 1만1000본 식재 동운천 생태하천길

보성군은 최근 주민들의 산책길로 잘 알려진 동운천 생태하천길의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꽃창포 1만 1000본을 식재했다고 15일 밝혔다.

꽃창포는 중금속, 영양염류 흡수와 악취제거 능력이 뛰어나 수질정화식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생식물로 이날 식재에는 보성군청년협의체를 비롯한 15개 지역단체가 동참했다.

이번 꽃창포 식재 행사에 함께한 보성군청년협의체는 무료 차 나눔 봉사를 진행했으며, 꽃창포 식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임태욱 보성군청년협의체 회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게 됐다"며 "동운천 건강성 회복과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보성군은 최근 동운천 생태하천길에 꽃창포 1만1000본을 식재했다. 보성군 제공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 장흥군, 여주 등 생산농가 대상

장흥군이 지난 12일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목표를 전체 농가의 10%로 설정하고 표고버섯, 쌀, 배, 블루베리, 여주 등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생산, 수확·유통 과정에서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안전관리 체계다.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 신규인증 신청은 작물 생육기간 2/3경과 전(수확 한달 전)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안전성 분석비는 전액 지원된다.

장흥군은 신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농약안전보관함, 소형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과 10월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의 인증절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 전 필수 이수 사항이며 갱신농가는 2년에 1회 이상 기본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농산유통과 수출유통팀(061-860-5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은 최근 동운천 생태하천길에 꽃창포 1만1000본을 식재했다. 보성군 제공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공연 1만여명 관람

전남 최초 1500대 드론 활용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고흥군이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막 공연을 통해 더 품격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드론쇼 개막 축하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 최초로 선보인 1500대의 드론 빛의 향연을 보기 위해 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녹동항을 꽂 채웠다.

멀티미디어 불꽃 쇼, 오리떼 퇴치 상용 드론 비행시연, 레이저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호평이 쏟아졌다. 드론쇼 첫 개막공연은 '2024 힘찬도



약, 희망찬 고흥의 봄'을 주제로 최첨단 기술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에 걸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조화로 탄생한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고흥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특히 드론 1500대가 그리는 화려한 빛의 공중 아트 조형물 그림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양기람 기자

이날 드론쇼 개막공연을 보기 위해 초저녁부터 녹동항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볐다. 지역 상권경제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이다.

또 드론쇼 공연 시작 전·후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교통체증과 주차 혼란 등이 예상됐으나, 녹동JC, 고흥군 모범운전자회, 도양의용소방대 등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의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녹동항 일원에 행사 안전요원을 촘촘히 배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700대 이상 규모의 녹동항 드론쇼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녹동바다정원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양기람 기자

청년농 종잣돈 수익 쏠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마련과 첨단기술 보급·확산에 효과노트를 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군 2년차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3ha 규모로 청년 창업보육, 임대형 스마트팜(5.76ha),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20개월간의 창업보육 교육은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교육으로, 매년 4~5월 중 52명을 선발하고, 현재는 1기부터 2기까지 75명이 수료했고, 3~4기 91명이 교육 중이다.

이 중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26명이 입주, 1인당 연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임대기간은 3년, 임대료는 1인당 연간 56만원으로 저렴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 농업인 육성은 물론 농업용 로봇, 무인농기계 등 실증·보급을 통해 첨단농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4~5월께 전국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광양시 '농정간담회'서 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

광양시는 지난 12일 봉강햇살수련원에서 농정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 청년후계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미생물을 활용한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인단체 간담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주재한 농정간담

회에서는 △퇴비사 지원사업 신설 △농기계 임대사업장 근무시간 연장 및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농어촌 인력 부족 해결 △농업인,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현장 실습비 지원 △소포장재 규격화 및 가격 조정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기욱 한농연 회장은 "광양은 인구의 1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관원 광양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며 "농관원이 하루속히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안전 먹거리와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1세기 농업은 먹거리 생산산업에서 농촌관광, 힐링을 넘어 탄소저장, 기후 조절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농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